

무등산 생태복원·지질관광 활성화 박차

군부대·원호사 상가 이전 내년 본격화 광주·담양·화순 지질관광사업단 설립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땀 세계화 기대

광주시가 무등산 생태복원 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을 통한 무등산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생태복원 사업은 무등산 정상 일원에 자리잡은 방공포대 이전과 무등산 계곡을 중심으로 조성된 원호사 집단시설을 정비하는 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은 1966년 군부대 주둔으로 지난 50여 년간 천왕봉을 비롯한 무등산 정상 일원의 탐방이 제한되고 군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지난 11월에는 국회에서 군부대(방공포대) 이전 사업의 재원 확보방안을 담은 '군사시설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전 부지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무등산 계곡을 중심으로 상가 등이 조성된 이후 무등산국립공원의 미관 훼손, 원호사 계곡 오염 원인으로 지목받아 원호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원호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138억원 등 총 398억원을 투입해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 주변 17만㎡에 원호사 상가 이주단지와 주거복합단지 등 5개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용역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15만㎡의 호수생태원을 35만㎡로 확장하고 녹지, 쉼터, 산책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면적



지난 2017년 하반기 중심시지구 지질공원탐방안내센터 내에서 진행된 지오스쿨 중 '광물과 암석' 시간에 참석자들이 무등산의 지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2만4000㎡,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의 생태탐방체험관도 건립한다.

이를 계기로 광주호 주변 '무등산 남도피아'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무등산국립공원 탐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무등산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작업도 활발하다.

시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전남도와 공동으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지질공원 최종 인증 여부

는 내년 4월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은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와 세계화 사업을 위해 전남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6일 전남대학교 지오컨버전센터에 무등산권 지질관광사업단을 개소한 바 있다.

사업단은 앞으로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유네스코 지오브랜드 개발, 세계화 추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재난안전대책 62개 분야로 확대

안전관리계획 의결

광주시는 26일 '2018년 광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박병호 행정부시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51명이 참석했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안전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재난유형별로 피해현황을 분석해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은 크게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은 지난해 55개

였던 재난유형을 ▲풍수해 ▲대설·한파 ▲가뭄 등 자연재난분야와 ▲화재 ▲산불 ▲감염병 ▲도로 교통사고 ▲자살 ▲식중독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분야로 구분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62개 분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재난·사고 유형이 62개인데, 하나하나 시민안전에 위해 꼼꼼히 점검하고 행거야 한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 참석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요구 ▲겨울철 대형화재 발생 예방 대책 마련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점검 추진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의결을 개진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북구 내년 '우수안심급식소' 12곳 지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광주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광주·전남영양사회장 장서영)가 2018년부터 위생·안전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우수안심급식소'로 지정·관리한다.

우수안심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위생·영양·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등의 법적사항 위반 여부, 센터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차 서류심사와 식품 위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2차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2018년 우수안심급식소 지정시설은 개미와배짚이어린이집, 돌리어린이집, 밀알특수어린이집, 반석어린이집, 북구 어린이집, 아이미소어린이집, 예쁜나라어린이집, 오지카리타스어린이집, 유문어린이집, 죽림어린이집, 참좋은어린이집, 한마음어린이집 총 12개소이다. 지

정시설은 우수안심급식소 현판 및 표창장을 받게 된다.

장서영 광주·전남영양사회장은 "아이들의 급식 품질 향상과 더불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불량급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급식시설 및 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수안심급식소 지정·관리가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 급식소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수안심급식소 사업 외에도 원장, 어린이 조리사 등의 맞춤 교육을 비롯해 영도계 대어, 식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저당·저염 식단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의 건강한 먹거리를 더욱 안전한 급식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올 각종 공모전 수상

사업비 총 177억원 확보

광주시 북구는 "각종 정책사업 공모전에서 89회 수상하고 사업비 177억여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8월 '탄소순환형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을 시작으로 광주시의 '정보화업무', '특별사법경찰업무' 평가 등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연말 각종 업무평가에서 결실을 맺었다. 올해 시 단위 평가에서만 17개 사업이 수상했다.

또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7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에서 받은 상은 22개였다.

특히 북구는 중앙부처와 광주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총 50개 사업, 166억5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201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9억200만원)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21억5500만원) ▲2017 상반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25억6500만원) ▲2018년도 문예회관 건립 사업평가(36억 6600만원) 등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업무협약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무수행 중 법적분쟁에 휘말린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 소방 활동 현장에서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소방관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법률상담과 소송사건의 변호를 지원하게 된다.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해 소방관법률지원단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방관들이 현장활동 시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힘쓰

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일시 2017. 12. 26.(화) 11:00 장소 광주지방변호사회



겠다"고 답했다. 소방청도 지난 10월 대한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소방관법률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동구 스마트폰 투표 '구정 우수시책' 선정

광주시 동구는 2017년도 구정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구정 베스트5'를 26일 선정·발표했다.

올해 베스트5 선정은 각 부서별로 우수 후보시책을 추천하고 '동구 두드림' 앱 정책투표 기능을 활용해 1632명의 주민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정책투표 결과 우수시책 1위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한 '특별교부세(금) 등 193억 확보'가 차지했다. 2위는 올해 2월 출시해 1만9000여 명

의 주민이 회원으로 가입하며 동구민 필수어플로 자리잡은 '동구 두드림' 앱이 선정됐다.

3위는 광주·전남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이 선정됐다.

4위는 지역 최초로 60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한 'No 치매, Yes 동구' 프로젝트가, 5위는 5기까지 진행되며 화제를 모은 '자 가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이 선정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접 646㎡(전) 국제양공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